

도시 가로수의 역사: 17-19세기 파리의 경우*

박소영*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I. 들어가며

도시민은 매일의 삶에서 가로수를 마주 친다. 그러나 나무를 도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세까지 일반적으로 숲에서나 볼 수 있던 나무는 19세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 도시의 가로를 따라 식재되어 도시의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한다. 가로수는 도로, 보행로, 가로등, 하수 시설 등 인공적인 도시 인프라와 달리 '살아 있는 생물'이다. 도시 내 나무의 도입과 가로수의 확산은 인간이 비인간-생물인 나무를 도시 환경 속에 길들여 보편화하는 과정이다. 즉, 도시 가로수의 역사는 곧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의 변화하는 관계를 드러낸다.

가로수에 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가로수의 생태, 기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영미권에서 가로수 관련 인문학적 연구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Lawrence(2008)와 Laurian(2019)은 각각 유럽과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가로수의 포괄적인 역사를 정리했다. Lawrence는 「City Trees」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르네상스부터 19세기까지 나무를 포함한 도시 경관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파리의 경관을 세계적으로 모방된 주요 모델로서 상세히 다루었다. Laurian(2019)은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파리의 가로수 식재의 역사를 개괄했다. Lawrence가 미학, 권력, 국가적 전통에 중점을 두고 나무를 문화사적으로 조명했다면, Laurian은 인간-자연 상호진화, 생명애, 자연 상품화(nature commodification), 환경 관리(environmental stewardship) 측면에서 가로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Lawrence(2008)와 Laurian(2019)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되, '살아 있는 도시 인프라'로서 가로수에 주목한다. 현대 도시 가로 경관의 모델이 된 파리에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나무가 도시에 도입되고, 가로수로서 확산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

II. 17세기: 도시 산책로의 구성 요소

16세기 말부터 프랑스의 절대군주들이 파리 성벽 내·외곽

에 산책로와 정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열식하면서 나무가 도시로 도입된다. 이는 정원의 산책로인 알레(allée)에서 길을 따라 나무를 줄지어 심는 전통을 도시 경관에 적용한 것이었다(Lawrence, 2008).

16세기까지 파리에서 나무가 제공하는 녹음은 정원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17세기 절대군주들은 주요 도시 공간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권력과 은혜를 과시하기 위해 도시 외곽에 나무를 열식해 도시를 미화(beautification)하고, 제한적이지만 보다 넓은 계층에게 녹음을 제공했다. 특히 왕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 소유의 정원인 쿠르드뱅센느(Cours de Vincennes)에는 부르주아 계층과 대학생도 출입할 수 있었다. 루이 14세는 도시가장자리의 옛 성채를 나무를 열식한 드넓은 산책로인 블러바드(boulevards)로 탈바꿈시켜 부르주아 계층을 포함한 파리 시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해 개방했다.

도시 외곽의 여가 공간에 열식된 나무는 정원에서와 같이 산책자에게 그늘을 드리우고, 다른 공간과 경계를 짓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7세기 도시의 알레는 정원의 알레와 달리 인간뿐 아니라, 차량을 위한 도시의 길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17세기 부유한 상층 계급 사이에 마차를 이용한 교통이 보편화되고, 마차 산책이 유행함에 따라 앙리 4세의 왕비 마리 드 메디시스(Marie de Médicis)의 정원인 쿠르라헨느(Cours la Reine)와 루이 14세의 블러바드는 마차 산책을 위한 드넓은 길로 조성된다. 이때부터 나무는 정원의 산책로를 넘어 보행 및 마차 산책을 위한 도시의 길을 구성하는 요소로 확장된다.

III. 18세기: 위락 구역의 장식적 프레임

18세기 파리에서는 왕립 식물원 설립, 성문 개축 등 상징적인 개발 사업을 통한 도시 미화가 계속된다. 블러바드 조성도 그 일환으로 지속되며, 루이 15세, 16세 때 블러바드는 도시 방벽 너머로 확장되었고, 도시를 에워싸는 블러바드 체계가 완성되었다(Bernard, 1970). 또한 루이 14세 때 조성된 킬리 에비뉴(Avenue des Tuileries)가 1709년 확장되어 샹젤리제(Champs-Élysées)라는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F1A1060431).

이름을 얻었으며, 18세기 중반에 상젤리제와 쿠르라헨느의 나무가 교체된다(Dorion, 2013). 18세기에는 나무를 포함한 새로운 경관이 조성되기보다 외곽의 기존 공간을 확장·개선하는 실천이 주로 이루어진다.

양시앵 레짐 말기에 부르주아 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17세기 절대 군주들이 조성한 산책로와 정원의 공간적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18세기 후반 도시 북서부 블러바드를 중심으로 여가 인구를 위한 카페, 극장, 레스토랑이 즐비하게 되면서 도시 외곽의 블러바드가 도시의 내부로 편입되었다. 상젤리제 역시 18세기 후반이 되면 근처에 고급주택이 개발되고, 레스토랑, 카페, 무도실 등이 생겨나며 대중에게 인기 있는 위락 구역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Marshall, 1852).

1789년 프랑스혁명의 여파로 왕실 소유의 정원, 쿠르라헨느와 킬리리 정원이 완전히 개방된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조성 당시 외곽에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블러바드와 상젤리제는 18세기 후반 도시 구역의 일부가 되었으며, 대중의 도시 가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마차와 보행 산책로를 구성하는 공간의 내적 요소인 블러바드의 나무는 18세기 후반에는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구역을 구성하는 장식적 프레임이 되며(Lawrence, 2008), 상젤리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IV. 19세기: 도시 인프라가 된 가로수

19세기 중엽까지 나무는 도시 주변부의 여가와 위락 공간 위주로 식재되어 있었고, 일반 대중이 생활하는 도심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한편, 중세의 공간 조직을 간직한 도심부는 전염병, 교통 체증 및 사고, 폭동의 온상이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경제 위기는 공공 및 민간 도시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도심부의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계획은 1830년대 비로소 실행된다. 이때는 프랑스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도시 문제가 극화되던 시기였다.

7월 왕정(1830-1848)의 센 지사인 랑뷔토(Rambuteau)와 그의 후임자이자 나폴레옹 3세의 파리 지사인 오스만(Baron Haussmann)은 물 공급, 위생, 교통 문제,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대대적인 도시 인프라 및 미화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새로운 의학 이론이 알려지면서 나무는 미화뿐 아니라, 위생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식재가 장려되었다(Beamish, 2018). 랑뷔토는 하수구와 보행로를 완비한 파리 도로 체계를 계획했으나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도시 내 광장과 산책로, 대형 도시 개발 사업에서 가로수를 심었고, 그의 재임 기간에 나무 식재를 허용한 표준 보도 폭이 규정되었다(Landau, 1992). 무엇보다도 그는 도시 주변부 블러바드를 지면 높이로 내려 도시 가로에 연결했다(Musée Carnavalet, 1985). 이때 산책로였던 블러바드 체

계는 완전히 도시 가로에 통합되었고, 열식된 나무는 도시 가로 수로서의 면모를 띠게 된다.

나폴레옹 3세 치하에서 오스만은 나무가 열식된 블러바드-산책로 모델을 이용해 파리를 가로지르는 블러바드-대로를 건설한다. 너비 26m가 넘는 광대한 블러바드가 도심부를 관통하며 나무는 도시 전역에 산재하게 되었다. 오스만의 파리 개조 사업을 통해 파리는 도로 인프라에 나무가 통합된 독특한 도시 경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주요 대도시들이 오스만화 즉 대로화의 궤적을 밟으면서 파리의 가로 경관 모델은 전 세계 도시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로써 나무는 전 세계 많은 도시의 길에서 도시민의 일상에 보편적으로 자리하게 된다.

V. 나가며

도시의 길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으나, 길에 나무를 열식하는 실천은 꾸준히 지속되고 확대되었다. 도시 가로수의 역사 속에서 식재 주체는 기능주의적(utilitarian) 관점에서 나무를 권력 과시·여가·미화·위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Laurian, 2019). 나무가 열식된 경관이 확산되고 이용 계층이 일반 대중으로 보편화되면서 도시에서 나무는 공간 구성 요소이자 도시의 장식적 프레임으로 대상화되어 편재한다.

그러나 가로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역사적 체험과 인식, 교통수단·도로 환경 및 공중 보건·위생 등 과학기술적 변화, 조경·도시 임업 등 가로수 관련 전문적 실천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 가로수는 살아 있는 생물로서 도시 환경에서 인간과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또한 도시 인프라로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고도로 문화화된 자연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Beamish, A. (2018). A garden in the street: the introduction of street trees in Boston and New York.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8(1): 38-56.
2. Bernard, L. (1970) *The Emerging City: Paris in the Age of Louis XIV*.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3. Dorion, N. (2013) *Petite histoire des alignements à Paris du XVI^e siècle au XIX^e siècle*. *Jardins de France* 626: 7-9.
4. Landau, B. (1992) *La fabrication des rues de Paris au XIX^e siècle : Un territoire d'innovation technique et politique*. *Les Annales de La Recherche Urbaine* 57-8(1): 24-45.
5. Laurian, L. (2019) *Planning for street trees and human-nature relations: Lessons from 600 years of street tree planting in Paris*. *Journal of Planning History* 18(4): 282-310.
6. Lawrence, H. W. (2008) *City trees: A Historical Geography from the Renaissance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7. Marshall, F. (1852) *The champs elysees: From the French*. *Ainsworth's Magazine* 22: 401-403.
8. Musée Carnavalet. (1985) *Les Grands boulevards*. Paris: Musées de la ville de Paris.